



즉시 배포용: 2023년 10월 3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혐오 및 편견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와 칼리지 캠퍼스에서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 자원 사용 발표

*지방 사법집행기관의 혐오 범죄 및 기타 범죄 예방 및 해결에 5,000만 달러 지원*

*예배당, 지역사회 센터, 기타 위험 장소의 혐오 범죄 예방 보안 강화를 위해 2,500만 달러 지원*

*주지사는 Jonathan Lippman 판사에게 CUNY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및 반차별 정책 종합 검토 시행 지시*

*뉴욕주는 학교와 칼리지 캠퍼스 내 위험을 감시 감독하는 소셜미디어 분석 유닛 확대*

*뉴욕주 인권국은 뉴욕 주민의 연대를 위한 커뮤니티 서클 진행*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10월 7일 하마스 테러 공격이후 몇 주간 혐오와 편견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면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민에 대한 담화문에서 Hochul 주지사는 혐오 및 기타 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지방 사법집행기관에 5,000만 달러를, 위험에 처함 지역사회 단체와 문화 센터 보안 확보에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의 소셜 미디어 분석 유닛을 확대하고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널리 존경 받는 전직 뉴욕주 항소 법원 판사장이자 뉴욕주 판사장인 Jonathan Lippman 판사가 뉴욕 시립 대학(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의 반유대주의 및 반차별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토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최우선 과제는 뉴욕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혐오와 위협이 일상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지사로서 저는 뉴욕의 반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기타 어떤 혐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뉴욕주 자산을 이용할 것입니다."

**Antonio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돌보고, 배경이 상관 없이 모든 뉴욕 주민을 혐오로부터 보호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것이며 자유롭게 그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뉴욕주 사법집행기관에 5,000만 달러

뉴욕주는 뉴욕시 외의 경찰서, 보안관실 등 사법집행기관이 범죄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신기술과 장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형사사법서비스국(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DCJS)의 자금 지원 신청 기한은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정오입니다. DCJS는 지난 가을 경찰서와 보안관실에서 필요한 기술과 장비의 종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신청 공모](#)를 발령했습니다. 기관은 변호판 판독기, 이동식 및 고정식 감시 카메라, 컴퓨터 순찰 시스템, 소프트웨어, 무인 항공기, 총상 감지 장치, 순찰차 및 경찰관용 스마트 장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안전 기술 및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혐오 범죄 대응 보조금 2,500만 달러

Hochul 주지사는 지역사회 혐오 범죄 대응 보조금(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SCAHC)으로 추가 2,500만 달러를 지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혐오와 극단주의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지사는 DCJS에 최대 보조금 지원액 증액, 간소화된 선착순 신청 절차, 보호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평가 등 향후 SCAHC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전략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혐오 범죄 위험에 처한 단체가 실제 가진 수요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7월 주지사는 [발표](#)를 통해 최근 주 전역의 497개 단체가 진행하는 1,081 개 프로젝트에 SCAHC 보조금 총 51,680,910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이중 8,899,091달러는 올 여름 187개의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DCJS가 운영하는 SCAHC 프로그램은 혐오 범죄에 대하여 사상, 신념 또는 활동으로 인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영리 지역사회 및 시민 센터, 문화 박물관, 기타 비영리 단체의 보안 절차를 강화하고 증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기금은 조명 잠금 장치, 경보기, 패닉 버튼, 울타리, 장벽, 액세스 제어, 파손 방지 유리, 파손 방지 필름 및 전관 방송 시스템, 그리고 최초로 사이버 보안 강화 조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외부 또는 내부 보안 개선 사항 시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또한 보안 교육과 관련된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CUNY의 반유대주의 및 반차별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제3자 검토

CUNY 정책과 절차에 대한 검토를 Hochul 주지사가 Jonathan Lippman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검토에는 유대인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고 반차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CUNY 신탁위원회(Board of Trustees)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됩니다. Lippman 판사는 Latham & Watkins 뉴욕 지사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로펌

역시 검토 과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는 면담, 조사, 기타 상담 등이 포함되며,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CUNY의 다양한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 태도 및 관점을 평가하는 방식 등 캠퍼스 환경.
- 반유대주의 신고 조사에 대한 대학의 현재 정책, 절차, 시스템.
- 반유대주의 관련 신고 및 기타 차별 행위에 대한 대학 측 처리의 일관성.
- 학생들이 반유대주의 위협, 차별 등에 시달리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유로운 발언권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Lippman 판사의 조사 결과는 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Jonathan Lippman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이자 변호사로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공정과 평등한 정의입니다. CUNY의 교육 커뮤니티에 소속된 유대인 학생을 비롯한 기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미의 공정, 그리고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가 제 검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와 모든 형태의 차별은 용납될 수 없으며, 저는 이토록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신 주지사의 결정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 **범죄 활동 및 기타 위험 확인을 위한 소셜미디어 분석 확대**

뉴욕주 경찰은 소셜미디어 활동 및 포스팅을 분석하여 뉴욕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고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주 경찰의 현재 노력은 가능한 탐지 및 수색 역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NYSIC 소속 소셜미디어 분석 유닛(Social Media Analysis Unit)에 추가적으로 700,000 달러를 지원하여 공개된 소셜미디어 활동을 일간 분석하는 인력을 증원하여 특히 학교 폭력 위험, 폭력단 활동, 불법 화기 등에 대한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고, 기존 범죄 수사에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고 적절한 담당자에게 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커뮤니티 서클**

최근 중동 불안정에 따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 소속 혐오편견 예방 유닛(Hate and Bias Prevention Unit)은 커뮤니티 서클을 운영하여 일련의 사건으로 영향을 입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돕고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클 활동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에 맞게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발표에 앞서 Hochul 주지사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혐오 및 편견 범죄에 대응하는 안전 프로토콜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주 Hochul 주지사는 [발표를](#) 통해, 뉴욕 주민이 혐오 및 편견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핫라인과 온라인 신고 양식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테러 공격

이후, Hochul 주지사는 즉시 국토안전 및 비상 서비스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산하 반테러리즘청(Office of Counterterrorism)을 [발동하고](#) 주 경찰의 소셜미디어 분석 활동을 강화했으며, MTA와 항만청(Port Authority)에 고위험 대중교통 허브 순찰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7월 Hochul 주지사는 [발표를](#) 통해 혐오 범죄 대상 단체의 안전과 보안 강화를 위해 5,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지원국은 주 전역에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239개 이상에 자금 및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 범죄 생존자, 그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개인이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범죄 관련 발생 비용을 보상 또는 상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ovs.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ackie Bray**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모든 수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투자는 뉴욕주와 FBI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혐오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Maria L. Imperial** 뉴욕주 인권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국은 혐오와 편견 없이 모두가 사랑하는, 더욱 나은 뉴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인류가 함께 혐오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Rossana Rosad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혐오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위협에 처한 단체와 뉴욕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제 팀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파트너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혐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Elizabeth Cronin** 뉴욕주 피해자 서비스국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혐오 범죄의 피해자들은 개인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원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이 거리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